東大新聞

發行人 金 東 莊 · 編輯人 南 都 泳 · 主幹 宋 泳 燾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9
本社直通 ㉓8498

每週月曜日發行

學生會選擧 一週日 남아

選擧사무실 마련등 萬全

각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궤도에 올라 열한 열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도 이미 다가섰도다 일주일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實務指導위원회의 지도아래 大學評議院주변의 사무실건물에 入學후보자 선거가 배려를 보름을 마련, 학원 선거가 참신하고 도록 하고 배려를 바람직한 있으며, 학생들은 모색에 신중을 기하고 이미 지난 14일부터 실시된 18인에 의 36개 학과 선거는 25단대회장 25일에는 대선거 선거가 실시돼 선거원에 되며, 임원장수여가 신고식 및 후보이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25일에는 단대 회장등 총회장등록을 마감, 선거일정 최종인 26일에 대의원 총회에서 총학생회장을 선출 하게 되어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총학생회장경합은 2~3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의원총회에서 최고득표자 1인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다. 한편 지나간 26일의 선거열 등이 1학기말 28일부터 시험이 2주간에걸쳐실시된다.

◇南 처장

南처장、選擧담화발표

"名實共히 公明選擧돼야"

총학생회장을 단대회장, 대의원등 비롯한 각 학생회선거를 앞두고 南都泳학생처장은 담화를발표, 대학인다운 자세로 公明選擧를 치루도록 당부했다.

南처장은 지난15일 『이번 학생회 총선거과정에서 대학생들의 민주역량을 발휘, 대내외에 신임을 받을수 있는 명실공히 모범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번학생회선거가 참된 民主主義훈련의 한과정이므로 대학생다운 지성과 비판력으로 모든 학생은 참여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히 南처장은 우리대학 학생운동이 어느대학보다도 긴역사를 가지고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본년전 「廣學會」후신의 본대학교 학생회는 救國抗日·민족문화활동에 비롯 큰활동으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와같은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고 우리는 중등을 가져와야 한다는 자각심아래 선거에 임해야할 것이라면서 재학생·입후보자·선거관리위원등에게 다음의 3개사항을 특히 강조했다.

①모든 학생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전원 투표에 참가, 학생들의 대변자가 될 수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선출해주기 바란다.

②입후보자는 대학의 공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當落을 떠나 교육적 견지에서 대학자성이 용납하지 않는 일체의 不美로운 행동을 배제하고 학원의 모범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

③입후보자는 정책대결로 정정당당하게 임해주고, 당선후에는 자기공약의 실천자가 되어야함은 물론 낙선자의 좋은 의견은 폭넓게 받아들여야 하며 전교생은 단결하여 적극지원하기 바란다.

④선거관리위원들은 공명선거를 호리는 행동이 없도록 계몽하여 이번 선거를 어느 때 보다도 公正無事하게 치러 참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아무나 오게』 合唱團노래보급

본대학합창단에서는 건전한 노래보급을 위한 「요들송」을 지난15일 F107강의실에서 약 반시간동안 합창단원들과 일반학생들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넓리 보급했다.

「아무나오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노래보급운동은 계기로 합창단에서는 앞으로도 매주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악보발행도 계획등에 있다.

理事長旗및 總長旗쟁탈 雄辯대회 盛了

변규호君등 8명 入賞

(前대한웅변연구원장) 씨가 맡았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 1개대학웅변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 대회에서 영예의 특등 총장旗는 「마음의 등불」이란 연제로 열변을 토해 1학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열변을 토했다.

이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 대회에서 영예의 특등 총장旗는 「마음의 등불」이란 연제로 열변을 토해 본선에 진출, 제1부문의 4차의 장원정 의와 내쇼날리즘」 「선거 를 통해본 국민의 정치의식 분석」 등의 논제로 열변토론과 질의를 벌였는데 본교 李양이 紅點으로 참석, 우수상을차지한것이다.

다음은 이날의 수상자 명단.

〈학생부〉

◇특등·총장기및 장학생 자격증=변규호(부산 해동고·2)

◇1등·문교부장관상=박양숙(성만여상·2)

◇2등·경희대총장상=서정복(영등포공고·3)

◇3등·동국대 불대학장상=박종윤(전남광주상고·3)

〈일반부〉

◇특등·이사장기=진순수(서울 마포구)

◇1등·치안국장상=방운용(육군·백룡부대)

◇2등·해군참모총장상=김태백(육군 제2815부대)

3등·조계종총무원장상=박종수(해병대사령부)

이완욱양우수賞

學術討論질의부문

지난2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대학생 학술토론회」에서 본교 이 완욱(法政大·1)양이 질의부문에서 우수상을차지했다.

이번 학술토론은 본교를 비롯한 전국 7개대학 학생이 참가하여 「新식민지주의와 내쇼날리즘」 「선거 를 통해본 국민의 정치의식 분석」 등의 논제로 열변토론과 질의를 벌였는데 본교 李양이 紅點으로 참석, 우수상을차지한것이다.

體育指導委에 建議

東國山岳會 예산是正촉구

東國山岳會(회장=崔鍾九)에서는 지난번 母校體育指導위원회 예산편성에서 大學山岳部를 제외결정한것은 한국 山岳운동의 선구적역할을 담당해온 山岳部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建議文을 제출했다.

體育指導委에서는 대한體育會에서 경기를 실시하는 운동에만 지원을 하기로하고 山岳部의 기타 個人종목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했었다. 東國山岳會에서는 이러한 體育指導委의 根本精神에 대한 자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답보상태에서 적어도 지도자는 과감하게 투쟁할수 있는 투쟁 정신의 소유자라야 한다. 정체되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도려내어 이 학술유의 「東國山岳」誌발간, 山岳祭典등을 개최해왔다. 그간 山岳部는 17만원정도의 예산을 받아왔으나 그중43%가 山岳部공동장비구입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약 4차의 장원정 합숙훈련에 충당되었는데 1회원정 훈련비는 최소한15만원(30명훈련비) 이 소요되어 山岳部員개인부담과 東國山岳會지원으로 유지하는 실정이다. 보건소에서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전교생을대상으로 실시한 신체검사를 모두 끝마쳤다. 이번 신체검사는 내과검진·X-레이 검진등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건강진단을받았다. 보건소 관계당국자는 『이번 신체검사는 전년에 비해 학생들이 자기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는 별도로 발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의 구강수검을 맞아 전교생에 대한 구강검사를 실시했다.

身體檢査끝나

例年보다 관심높아

東國山岳祭典

20일, 北漢山서

「東國山岳會」에서는 오는20일 북한산에서 제3회 등국山岳제전을 개최한다. 이날 산악회원들은 재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山岳祭를 성대히 열렸다.

2학년들이 주관한 이번 공연은 안수광·서옥경·장광·김명희양등이 출연한다.

한편 실습공연 제1백회를 기념하는 大公演으로 「쉑스피어」 4대비극중의하나인 「오셀로」를 김재남譯演出로 오는 7월중순경 국립극장에서 공연키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百회 公演준비

演映科, 실습공연

본교 演映科에서는 제98·99회 실습공연으로 「버나드·쇼」作 김효경演出 「운명의 사람」과 「T·C·말테이」作 차범석譯 조수임演出 「장남의 권리」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소극장에서 오후 4시30분과 7시30분 두차례에걸쳐 공연한다.

2학년들이 주관한 이번 공연의 캐스트로는 안수광·서옥경·장광·김명희양등이 출연한다.

한편 실습공연 제1백회를 기념하는 大公演으로 「쉑스피어」 4대비극중의하나인 「오셀로」를 김재남譯演出로 오는 7월중순경 국립극장에서 공연키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英語英文學會 副會長 李昌培교수

문리대 李昌培교수는 12일 誠信여사대에서 열린 「韓國英語英文學會」 정기총회에서 同회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선 김재남교수가 理事로 선출되었다.

今週一言

게으르고 약하게 사는 백년보다는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는 하루가낫다.

<法句經>

指導者的資質 발휘해야

張元圭(교무처장 佛大교수)

大學社會의 학생자치활동을 이끌고 나갈 학생회장은 大學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의미에서 전대학인의 관심사가 아닐수없다. 학생자치활동의 성패는 전체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도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학생회장의 力量에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학생회장을 학생사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나름의 지도자적인 자질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義로운義, 大我精神에입각한점가 아닐까. 일체의 파벌의식을 초월하여 언제나 공명정대한 마음이 되어야한다.

순수한母校愛나 鄕友愛는 바람직한것이지만 지나친 地方色을강조하는것은 금물이다. 파벌에 치우치면 분열밖에없고 전체를이끄는 「리더」가 될수도없다. 언제나 책임감이 부철하고 성실하며 大局的인 견지에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신이깊요하다. 인격을 확대시켜 넓게 포용할수있는 「리더·쉽」이 아쉬운것이다.

知慧와 德갖춘 學生요구

李鍾麟(法政大 學長)

학생운동의 기본 사상은 자아확립체계에 있는것이다. 올바른 기성적 세계를 인식 할 수 있는 주체적이며 慧覺的인 지성인을 요구하는 주관적 세계관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도자적인 기능은 주인류사적 과정을 통하여서 지도자적인 체계확립을 수립 할 수 있는 목적관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로 학생회 회장은 5천건아를 지도할 수있는 인격적인 덕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상호간의대화의광장을 개진해 줄수있는 주선자가 되어야 하며 정의를위하여 판단력이 명석하여야 하다. 셋째, 판단력이 명석하여야 한다. 넷째, 私를 멀리하고 공동의 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성인다운 자세로 공명정대한 기초개념을 저바리지않고 사색과 행동의 一元化를 위해서는 대의명분을 저바리지않는 인격열화할 수 있는 인물이 바람직한 학생회장상이라 하겠다.

새역사 創造의 旗手를

南基一(총학생 경영과 4년)

學生指導者像—이렇게본다

일하는 良心的인 사람

金周石(佛敎科 3학년)

大學社會는 未來社會를 선도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사회가 온한 해질수록 大學사회에 거는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한 것이다. 해마다 치루고 있는 학생회선거가 旣成 정치인들의 닮아 발생이 생길때마다 우리들 실망 시키곤 한다.

그러나 이번만은 東大學生社會의 지도자를 뽑는데 있어서 마땅히 대학사회의 「엘리트」로서의 긍지를 심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 「리더」로서의 자만심을 갖기에 앞서 성실한 자세로 학교를 위해 일할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기성 정치인들을 닮아 야비한 방법이나 金力및 暴力을 일삼는 이른바 권모술수를 지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大學의 순수이성을 지키며 지성에 효소하는 순수하고도 성실한 일꾼이어야 한다.

모든일을 自己일처럼

이영숙(社敎·3)

우선 우리의 모든일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해 결해 나가는 사람에게 학생회를 맡기고 싶다. 학생회는 자기 위주가 아니라 우리모두의 공동체라는 사명감이 전제 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모두가 원하고, 모두를 위할수 있고 모두가 참여할 수있는 방향을 세워야될것 같다. 종래 처럼 참여할 구호나 공약만을 늘려 놓는 태도를 지양해야한다. 학생들의 수업상황과 교수의 강의 상황 역시 파악하여 살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위치를향상 시켜줄수 있는 구체적인 커리큐럼이나 행정적 지원 또한 절실하다. 여학생들이 갖는 고충을해소시켜 주었으면 한다.

개인적인 습理化나 그와 비슷한 이른이 붙신임으로 끝나지 않게 충분한 계획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한다.

진것 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는 좌절하기 쉽고, 기만하기 쉬우며, 파괴적행동을 자행하기십다. 대내적으로는 학내 사정을 파악하여 대학당국에 반영, 이를 촉진 시킬줄 알아야 하며 미래관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학생운동이 시기적 돌발적인것을 지양하고 일률적·체계적·지속적으로 사회 일면을 계몽하고, 자각을 줄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것같다. 어디까지나 창조적 사고력을가진자로서 학생자치활동의 근본목적을 살림을 알아야며 임시적 감흥, 감정에 동요된다거나 학생들의 인기만을 생각하여 일기응변식 행동만을 일삼는것은 위험천만이다. 끝으로 새로운 기풍진작과 새역사 창조의 후임 기수가 나와 추기를바라마지 않는다.

學生指導者像—이렇게본다

지도자적 能力과 자질로

李起碩(行政科 3학년)

학생회장의 사명은 전체학생의 결합된 능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설정한 목표에로 밀고 나가는데 있다.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는 전체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도자적인 能力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의 답보상태에서 적어도 지도자는 과감하게 투쟁할수 있는 투쟁 정신의 소유자라야 한다. 정체되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도려내어 이 학생자치활동을 이끌고 나갈 학생회장은 大學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의미에서 전대학인의 관심사가 아닐수없다. 학생자치활동의 성패는 전체학생들의 力量에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학생회장의 학생사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나름의 지도자적인 자질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義로운義, 大我精神에입각한점가 아닐까. 일체의 파벌의식을 초월하여 언제나 공명정대한 마음이 되어야한다.

순수한母校愛나 鄕友愛는 바람직한것이지만 지나친 地方色을강조하는것은 금물이다. 파벌에 치우치면 분열밖에없고 전체를이끄는 「리더」가 될수도없다. 언제나 책임감이 부철하고 성실하며 大局的인 견지에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신이깊요하다. 인격을 확대시켜 넓게 포용할수있는 「리더·쉽」이 아쉬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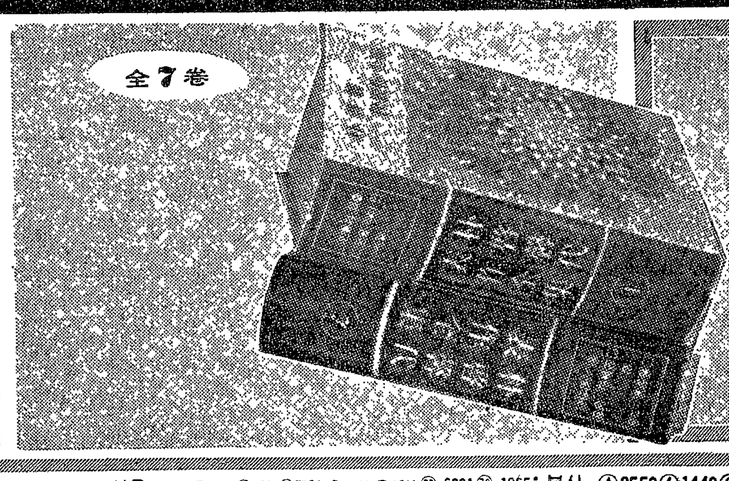
다채롭고 감각적인 문장으로 엮어진 톱 베스트 셀러 작가 박계형여사의 최대의 역작들!!

朴啓馨代表作全集

◎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現實과 비틀거리는 現代人의 애정풍토를 예리하게 파헤치는 현재작가의 현재작품들!!
◎ 신선하고 정교하고 리드미칼한 문장으로 독자들을 매혹시킬 우리의 작품들!!

1 꿈을 먹다만 세월
인형의 외출
2 사랑할수록 외로워지리라
바람속의 눈동자들
3 당신이 내 가슴에 심어준 것은
애정이 있는 양지
4 인생의 반은 이별이어라
첫정이 트이던 시절
5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전후편
6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아픔을
목숨의 불꽃이 질 때까지
7 동짓달 그믐밤
오늘만 영원히 사랑하리

全7卷



◎ 십년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속해오는 人氣女流作家의 力作들!!
◎ 고달픈 한국풍토에서 貳拾萬部라는 엄청난 독자를 흡수하고 있는 人氣作品들!!

서울特別市中區芳山洞79의1 경인빌딩303
圖書出版 노벨文化社
TEL. 53-1490·1385

4×6版/고급크로스/호화양장/
各卷600面 全7卷(케스·올박스入)
全帙定價 9,000원 6개월 월부

電話注文處 ㉓㉓ 11 43 98 05
서울⑯6944⑳1958㉘4530㉝7950㉞0898㉖3511⑬6221⑫1965: 부산 ④2559④1440⑥2440 : 대구 ③6731③4566②1551②8965②5884
광주 ②1476 ②9189②4476 : 대전 ②9797 김천 1430 : 수원 3386 : 천안1099 : 안동 444 : 청주 4793 : 인천 1338
전주 5939 마산 6703 : 진해 1010 : 여수 2111 : 순천 3525 : 목포 ②1902②3626 : 춘천 3947 2818 : 보성 124 : 영암 257
재천 2835 원주 3555 : 홍천 163 : 포항 3396 2968 : 김천 625 : 진주 2835 : 강릉 175 314 : 김제 504 : 남원 557
569 : 속초 2301 삼천포 623 : 해남 407 : 정읍 784 : 울산 2485 : 장흥 105 : 북평 316 : 점촌 2058 : 군산 대성서림 제주 2086

今週의 人物

보리수

『그러나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이루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관이 바로 大乘佛敎보살의 부정적 창조적 인생관이다.』

『그러나 내뜻대로 마음 대로 이루어지지이다.』고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도 순종하였다. 순종은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재의 근원이고, 모든 것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러나 다고 願하는 마음이 바치는 이 세상에는 아는 밖에도 다른것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대로 이루어지는 선언하였다. 가능하면 銀으로서의 세계처럼 모든것이 의식에 內在한다는 뜻에서 나는 모든 존

각單大會長입후보자

紙上所見發表

學園選擧 참된 일꾼 바로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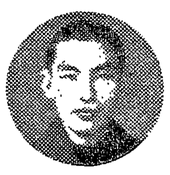
기권없는

1972學年度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오는 23일의 단대회장선거로 그 막을 올리게 된다. 이에 본사에서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전초전인 단대회장선거 입후보자 13명의 紙上 所見발표회를 갖는다. 보다 올바른 선거, 명랑한 선거, 참여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佛敎大學

知性東國의 새里程標 설정



李大聖 <佛敎學科>

佛敎의 시대적 이념은 「너와나」의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定立되어야한다.

나는 불대학생회장에 출마, 東國의 비약적인 미래에 적극 참여하려는 여러분의 굳은 결의에 보조를 맞추고 禪學理念의 구심점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한다.

나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현대의 요구에 호응, 여러분과 함께 佛敎大에 「새 이정표」를 설정코저한다.

우리의 열렬한 사명감과 실력있는 지성인으로서의 용기가 하나로 굳세 뭉쳐진다면 후퇴와 침체, 독선과 허세로 병든 佛敎大의 풍토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인간성을 회복하여 우리의 목표인 知性 동국의 「리더」가 될수 있음은 불은 선봉적 역할을 할수있으리라 믿는다.

나는 혼자서 달리는 회장이 아니라 여러분과함께 달리는 회장이 되게다는 굳은 신념을 전제함과 동시에 첫째, 공부하는 불교대학 둘째, 各科의 균등한 발전 셋째, 전전한 학원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밀고 나가겠다.

천재의 불만족은 미래의 완전함에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고여있는 물은 부패하게 마련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전진이 있을 뿐이다.

◇1945년생·전북 고창 출신.

眞理, 正道 위한 날카로운 곡괭이

鍾玩林 <哲學科>

오랜 역사와 전통이 최고의 저력인양 과시하고 밀폭의 사상을 총괄하고 있다고 한껏 내세우는 우리 불교대학이 해마다 침체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서 새기운을 투입시킬수 있는 「바로레터」는 무엇인가.

우리의 요람이며 교관인 東國과 佛敎大를 위하여 나는 모든 땀과 정성을 기꺼이 바칠 것을 약속한다.

내가 바치고 기우리려는 것은 힘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安逸과 위축과 침체일로의 구태의연함이 아니다.

이것은 밝은 내일을 위한 지성과 정의에의 도전이다. 그리고 理性과 인내와 절제와 노력을 갖출 수 있는 굳센 신념일 뿐이다.

東國人의 영예라면, 佛大人의 번영이라면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와 발전의 단계라면 나는 이 모든것을 바치려한다.

지금까지 되풀이 되어오고 앞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나태한 지성들을 일소하겠다.

교문밖의 일을 볼때마다 우리는 가장 순수해야하며 포범이어야 함을 절감한다. 지성인일을 자부하는 우리라면 냉철한 판단으로 자기들의 일문을 뽑아야 한다.

나는 진리를 머리에 이고 正道와 學問의 터전을 닦는데 날카로운 곡괭이로, 꺼지지 않는 횃불로 나의 의무와 사명을 실천하겠다.

◇1949년생, 충남 아산출신

길이 험하다고 멈출 소냐?

姜達中 <英文學科>

본인은 번영 동국의 봉화를 들고 정열과 신념, 공정의와 지를 앞장세워 문리대 회장에 자신있게 나섰다. 내일이 오는 길목에 동국의 비전을 걸고 호연과 실천 불가능의 공약 남용을 지양하며 오직 역량껏 여러분의 진실한 대변인이 되고자 신념을 굳힐 뿐이다. 그순간 이미 동국 발전의 대열에 앞장서고 있음을 직감한다. 전등국인 여러분은 여러분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전진하는 동국, 전환기에 놓인 문리대를 위하여 힘이 될수 있는가를, 현동할 줄 아는가를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협동하지 못하고 시련에 굴하자에게는 자멸이 있을 뿐이다. 이자리에서 동국발전을 위해, 문리대 발전을 위해 전등국인앞에 본인의 소신을 명백히 밝혀두다. 첫째로, 백마디의 말 보다는 한가지의 실천을 무엇보다 앞세우겠다.

둘째로, 편견과 특혜를 일소하고 공평한 분위기 속에 배움이 있는 정상적인 학원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

셋째로, 문리대內에서의 문학부·이학부의 제 강좌를위해 정기적인 합동 체육대회를 통해 번져 문리대內의 결속을 강화하고 沉등대 발전 구현의 선봉임을 과시하겠다분명히 우리가 지금 견고있는 길은 멀고 험준하며 짐은 부겁고 조급하지 막, 짐이 험하다고 멈출수없고, 짐이 두겁다고 이대로 벗을수 없다. 우리의 전진의 대열에 너와나가 있을수 없고 다만 우리가 있을 뿐이라고 부르짖고 싶다.

◇1946년생 경남 晉陽출신.

空約아닌 公約 실천에 최선

徐大源 <國文學科>

왜 학원선거가 主潮者인 학생들에게서 의면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을 대변해주는 公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이 들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던 公約이 空約으로 끝나 학생들의 실망과 회의를 계속 샀기때문이다. 이「매력없는 선거」에 입후보하며 나는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몇가지 公約을 내걸어 文理大학형들의 심판을 기다리겠다.

①교수·학생 定期간담회 개최

우리 모두는 학교시책이나 강의에서 야기되는 전반적인 문제에 비판적, 건설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現實은 對話의 자리와 方法이 없어 건설적 의견은 분노와 불평으로 끝나「만성위장병」에걸려있다. 이병은조속히 치료돼야한다.

②장학생 수효증가

현재 한학년 2·3명에게 지급되는 장학제도를 5·6人의 다수 학생에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③英語독강 실시 및 각종 특강 실시

사회진출및 학문연구의 필수어가 되고 있는 語學·특히 英語독강을 실시, 부족한 영어교육을 보충하겠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創作독강」을 계속하고, 各科에 적합한 特講을 수시로 실시하겠다.

④文理大 종합체육대회 개최

他 대학과 달리 文學部, 理學部로 나뉘어 있는 文理大의 특수성을 감안, 문리대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친선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1945년생, 서울출신

文理科大學

眞摯한 결심으로 未來위한 비장한 결심으로

具兵書 <經濟學科>

우리가 65년의 전통을 자랑하긴엔 우리는 너무나 떳떳하지 못했고, 현실이 그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그래도 나는 항상 우리「東國」을 자랑했고, 또 지대한 관심으로 直視해 왔다. 나의 出帆의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심이 아니다. 어제를 보고 오늘과 내일을 위한 비장한 결심이라고 말해두고 싶다.

경상대학이 學內에서 차지하는 比重— 경상대학의 두각은 곧 동국의 비전이요, 동국의 발전은 우리 자신들의 귀중한 바램이다.

이러한 현실을 좌시할수 만은 없어 일어섰다. 과감하게「매스」를 加함으로써 몸은 상처를 제거해야 한다.

항상 학생들의 不平이 되어온 교수진 補强, 학교행정의 난맥상, 학생자치기구의 갈부일변도 시정 등을 비롯 학생들의 복지문제, 학구문제에 全力하겠다.

특히 특강補完및 직업보도에 대해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겠으며 각학술연구실의 보조도 건의하겠다. 우리는 주저할 때가 아니다.

착신한 의문을 뽑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결단을 내려 진정한 대변자를 적극 밀어줘야 할 출로인다.

전진을 위한 대열에 앞장서기를 결심한 본인에게 손등국인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

◇1945년생, 경기도 仁川출신.

모순과 不協和音 시정할때

李泰漢 <經營學科>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돌고 있다. 그것이 포장도로를 달린다면 순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만, 산골길이나 시골길을 달린다면 거기에는 움덩이도, 큰 돌도 앞에 놓여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그러나 말(馬)은 달려야 한다. 우리 현실은 시골길도 아닌 산골길을 달리고 있다.

변모하는 사회조류속에 65년이란 유구한 전통을 앞세웠던 우리의 동국은「어제의 침체에서 오늘은 전진」이라는 슬가쁜 새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현대문명의 기계화가 우리 인간사회를 향시 불안하게 이끌어 오듯, 우리 동국은 포화상태에서 고민하고있다.

어제의 동국이 量的으로 膨大했다면, 오늘의 동국은 그와 병행한 質的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 우리가 타당해 보이는 부분적인 가설들을 시험해 보고, 또 발전적인 수정의 여지가 항시 존재할수 있도록 노력하자.

민중의 지도자는「마스터·프랜」을 많이 전개시킨다고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오늘의 지도자는 민중과 같이 호흡할줄 알고, 그 시대의 의지를 표현하고 시대의 의지를 전해주고, 그것을 완성할 줄 아는 인간상이 되어야 한다.

5천 동국인 권익을 위해 야당의 입장에서 희부심을 공감, 더욱 성장하는 공과대학,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공과대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보겠다.

1945년생, 충남 瑞山 출신.

농림학도의 人和와 團結을

李萬柱 <農學科>

현실을 개척하고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며 오늘도 농림대를 위해 우리 농림학도는 노력하고있다.

나의 신념과 구상을 여러분께 제시하여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얻고자 한다.

나는 역대회장들이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고 후배들에게 좀더나은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고자한다. 그 지표에 도달하기위해 본인은 3가지사항을 제시하여 온갖 노력과 성의를다하고자한다.

①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농림학도.

②단결하고 서로도와주는 희생봉사정신의 농림학도.

③태양에 그을린 건강한 신체의 농림학도.

우리 농대생의 복지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또 功績보다는 묵묵히 실천하여 후일 여러분을 한테 꾸중들지 않는 참다운 일꾼이 되겠다.

여러분의 밑거름이되고 산소와 태양과 살충제가 되어 잡초와 세균을 없애버린 기름지고 참다운숲과 아늑한 농림대의 정원에서 여러분이 생활할수 있도록,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바라마지않는다.

『농림학도 인화로, 농림대학 단결을!』

본인은 여러 학형들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위하여 심판대에 섰다.

나자신이 희생된다 해도 신념과 결심에는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

◇1950년생, 경남 晉州출신

農林大學

젊음과 勇氣의 總和 이룩할터

張成一 <食品工學科>

전진하는 세대앞의 담보상태는 후퇴를 의미한듯이 65년의 긴 동국의 역사가 정말로 그 사명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고향을 잃은 실향인이 되어왔다. 실향인이아닌 우리의 지성과 정의에 세월은 또다시「空轉」을 안겨준채 다시 이자리를 만들었다. 무엇인가 필요했던 그자리. 그 시간위에 우리는 늑술고 있는 심장의 고동을 축진시켜야 할때인 것이다.

문명이란 마술에 걸려 대학생들은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다. 비록 아픔을 갖이하면 시기는 멀어져간다해도 우리의 갈길과 지표는 신을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학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들과 꼭같은 젊음이, 그리고 용기가 있으면서도 그 능력들이 總和를 이루지 못하고 분산되고만 있는 시련을 방관할 수 만 있겠는가?

나는 이 흩어진 능력과 용기를 한데 모우는데 전심전력하겠다. 현명하신 우리 지성의 열매가 불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것이다.

우리는 명랑한 선거풍토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날로 발전하는 동국, 그중에서도 공과대학은 오늘의 공대보다 알차고 보람찬 내일의 공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1951년생 서울출신

工科大學

푸르름에 찬 希望의 캠퍼스로

李仙馥 <社會敎育科>

초여름의 젊은 녹음이 핀 캠퍼스에는 우리의 푸름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시대에 맞선 우리의 얘기는 이렇게 푸르름과 같이 커왔다고 본다.

모두 푸르러 있는 우리 학원에서 무언가(?) 푸르게 가꾸어야 할 일이 우리 여학생들에게 지워진 것같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앞에 놓은채 많은 시간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활해온 본인으로서 굳이 이렇게 앞에 나선것은 혼자만이 충실했었고 충실할 것이라는 어색하고 어설픈 애길 하자는건 결코 아니다.

다만 지금의 심정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좀더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시키며 제 힘껏, 있는힘을 다해서해보겠다는것 뿐이다.

지금껏 생활해 오면서 느낀 점들과 느꼈기에 보고만 있을순 없었노라는, 의욕이 절게 꿈틀거리는속에서 이처럼 과감히 나설 수있다는건 오직 할수 있다는, 하겠다는, 그리곤 악착같이 노력하겠다는 자신, 그것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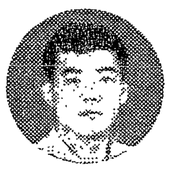
우리에게 주어진 그일청난 많은 일들을 앞에놓고 이 것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뒤에서 미는 여러분의 힘과 이끌 수 있는 힘을합치면 우리 여학생회의 向上발전도 기대될것으로 본다.

푸르른 캠퍼스에서 우린 언제나 푸르름에 찬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겠으며,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바램을 이루도록 힘써 全心노력할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1951년생, 충남 牙山출신

女學生會

진정한 學生福祉 위해 新風운동



安紀聲 <警察行政科>

흙처럼 정직한 것은 없다.

피폐한 땅에서는 열매가 알뜰히 맺어지지 않지만 풍요한 땅에서는 열매가 알뜰히 맺어지는것은 당연하다. 알은간물은 물속을 내다 보이면서 쫄랑쫄랑한 흐르지만 깊은강물은 흐른는듯 마는듯하나 기실 그 흘굽이는 드세고 웅장하게 흐른다. 이깊은 물에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고싶은 충동을 느낄만큼 믿음직스러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이없기때문이다. 침묵—그것만을 간직하고 억만년을 내려온 한강. 한강물 끼고있는 남산의 동국인이 어찌 긍지를 갖지않을수 있겠는가? 한강에서 인생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는 남산의 어둠을 밝힐 사명감에 몸혀있다. 어둠을 탓하지말자. 어둠을 탓하기전에 촛불을 밝혀놓자. 동국의 落後를 탓하지말고 너나할것없이 땀과 노력을 다하여 동국을 일으키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실현성없는 공약을 내걸고 학우들을 우롱하기보다는 작은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할수있는 실천력을 중요시해왔다.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행동력이 중요하다. 교문에서부터 운동장, 강의실, 교수실, 총장실까지 우리의 지성과양식, 그리고 진정한 학생복지를위한 신풍운동을 일으키자. 동국을 밝힐 내 스스로의 사명감을 외면할수없어 이자리에 나섰다.

나는 약속한다. 보다 밝은 동국의 내일을!

◇1945年生 경북 金泉출신.

창조적 建設위한 出帆

李華永 <行政學科>

『때는 왔다!』누구 하나 뒤를 물소냐? 東國이란 共同運命體 속에서 안으로는 실력배양에 게을리하지 않고 밖으로는 惠化專門의 열을 되살려 우리 모두의 힘으로 단결의 깃발아래 굳게 뭉쳐야할 重大한 시기가 온 것이다.

東國의 주인은 학생이다. 우리의 자주와 권익을 보장치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수행치 못한다. 본인은 오로지 5천 동국인의 충실한 머슴으로서 해묵은 타성은 뿌리 뽑고, 고질화된 병폐를 단호히 제거하며 학생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성취하고 우리의 숙원인 東國의 열을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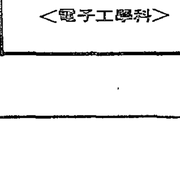
저는 法政人의 투지와 高見으로 이상적인 동국을 건설할 것이며 동국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다 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法政人에 의한 동국「비전」을 실현해야 한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여러분의 理想과 머슴이 될 저의 理想을 총집약시켜「답보상태의 동국을 전진의 동국으로」이끄는데 심혈을 기울여 보자.

지난날 우리의 선배들 처럼 偶發的이고 파괴적인 주장을 지양하고 주어진 현실을 외면치 말고 좀더 건설적이며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결단력과 이제 싱그러운 젊은 知性을 신조로 하여 沉동국에 르네상스가 이룩되는 그날까지 코끼리의 용맹과 지혜를 武器삼아 후회를 모르는 참신한 머슴으로서 최선을 경주해 보겠다.

◇1949년생, 충남 唐津출신

法政大學

공대의 앞날을 내다 보며



李仁宰 <電子工學科>

六月의 하오 나른해지고 오수를 즐겼으면 하는 오늘! 지면을 통해 소견을 발표하게 선처를 베풀어주신 신문사측에 우선 감사를 드린다.

역대 임후보자들은「실험기구 완비」,「아르바이트 문의처 개설」「졸업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등 여러가지 달콤한 언어를 남발했지만 우리의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제의 동국은 어떠했고, 오늘의 동국은 어떠하고, 내일의 동국은 어떻게 될것인가?

지난날의 동국은 너무도 찬란했었건만 오늘의동국은 어떠한가? 를 말하기 이전에 미래의 동국을 생각하자. 선배들이 닦아온 기반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만을 앞세우는 者보다 말없이 행동으로 행하는 者를 필요로 하는것이 급선무라고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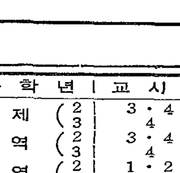
4·27 5·25등 두차례의 선거에서 학생들은 전례없이 투표·개표 참관을 했는데도 학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것이다.

우리는 명랑한 선거풍토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1951년생 서울출신

師範大學

師大 밝히는 眼科의사로



安載根 <科學敎育科>

오늘도 삼보연덕에는 따스한 햇볕이 비치고있다. 그러나 동국인은 시력이 퇴화되고 피부가 둔화되어 찬란한 광명과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안과의사가 되어 동국의 시력을 교정시킬 것을 결심하고 최장에 입후보했다.

우리 師大는 선배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거인들이 師大의 전통과 역사가 된다고하겠다.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후배에게 좋은 전통과 학문에 열중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킬 책임이있다. 지상을 통해 평소 본인이 생각했던 몇가지를 내결고자 한다.

여기에는 師大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원없이는 한가지도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명심하여 師大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동국의 새역사를 창조하는데도 적극협력하자.

1, 사대학보〈師苑〉의 계속발간

2, 사범대학건물의 확보

3, 사대부속 중·고등학교와의 유대및 실습강화

4, 부족한 교수와 실험실의 확보

5, 각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회비를 적재적소에 활용

6, 인화단결〈학회장과 대의원의 모임개최〉

7, 기타 학생의 복지문제

◇1949년생, 충북 永同출신

師範大學

2·3학년 대의원선거 일정표

6월25일(금)실시

대학	학과	학년	교시	시간	강의실
불교대학	불	(2	3·4	11·00~12·50	C 205
		3)	3·4	11·00~12·50	C 206
	철	(2	7	3·10~4·00	C 207
		3)	6~8	2·10~5·00	도서관특수열람실
	인 철	(2	3·4	11·00~12·50	C 207
		3)	3·4	11·00~12·50	C 201
문리과대학	국	(2	(6·24목) 5·6	1·10~3·00	A 106
		3)	3·4	11·00~12·50	A 107
	영	(2	3·4	11·00~12·50	A 109
		3)	3·4	11·00~12·50	A 108
	사	(2	3·4	11·00~12·50	A 220
		3)	3·4	11·00~12·50	A 105
	연 영	(2	3·4	11·00~12·50	소극장
		3)	1·2	9·00~10·50	A 107
	수	(2	5·6	1·10~3·00	A 112
		3)	3·4	11·00~12·50	A 112
	물 리	(2	1·2	9·00~10·50	A 327
		3)	4·5	12·00~2·00	D 210
	화	(2	1·2	9·00~10·50	A 111
		3)	5·6	1·10~3·00	A 214
	통	(2	3·4	11·00~12·50	A 111
		3)	(6·24목) 4	12·00~12·50	B 308
법정대학	법	(2	3·4	11·00~12·50	B 204
		3)	1·2	9·00~10·50	A 110
	정 외	(2	5·6	1·10~3·00	A 110
		3)	5·6	1·10~3·00	A 220
	행 정	(2	3·4	11·00~12·50	B 204
		3)	4	12·00~12·50	A 216
	경 행	(2	5	1·10~2·00	F 107
		3)	5·6	1·10~3·00	A 322
경상대학	경 제	(2	3·4	11·00~12·50	A 217
		3)	4	12·00~12·50	A 218
	무 역	(2	3·4	11·00~12·50	A 323
		3)	4	12·00~12·50	C 309
	경 영	(2	1·2	9·00~10·50	A 216
		3)	1·2	9·00~10·50	B 309
농림대학	농	(2	1·2	9·00~10·50	A 323
		3)	3·4	11·00~12·50	A 327
	임	(2	3	11·00~11·50	A 213
		3)	5~8	1·10~5·00	D 214
	는 경	(2	3·4	11·00~12·50	A 328
		3)	1·2	9·00~10·50	A 324
	농 생	(2	3·4	11·00~12·50	B 308
		3)	3·4	11·00~12·50	B 410
공과대학	전 공	(2	5·6	1·10~3·00	E 104
		3)	3·4	11·00~12·50	E 214
	토 공	(2	5~8	1·10~5·00	E 423
		3)	1·2	9·00~10·50	E 422
	건 공	(2	5·6	1·10~3·00	E 620
		3)	1~8	9·00~5·00	E 619
	화 공	2	5	1·10~2·00	E 318
	고 분 공	(2	7·8	3·10~5·00	E 113
		3)	3·4	11·00~12·50	E 105
	식 공	(2	6	2·10~3·00	F 321
		3)	3·4	11·00~12·50	E 515
	전 기 공	2	5·6	1·10~3·00	E 104
	전 자 공	3	3·4	11·00~12·50	E 423
	공 경	(2	7·8	3·10~5·00	C 203
		3)	1·2	9·00~10·50	A 321
사범대학	국 교	(2	5·6	1·10~3·00	C 204
		3)	5·6	1·10~3·00	C 203
	사 교	2	5·6	1·10~3·00	C 204
	(역사·지리)	3	3·4	11·00~12·50	B 313
	과 교	2	1~4	9·00~12·50	교련장
	(화학·생물)	3	5~8	1·10~5·00	D 107
	수 교	(2	5·6	1·10~3·00	A 112
		3)	3·4	11·00~12·50	A 112
	체 교	2	5·6	1·10~3·00	B 415

1971년6월19일

동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

紛失廣告 (學生證)

本籍 釜山市釜山鎭區門峴洞362番地
住所 城北區石串洞332의223
姓名 金弘燊 (經濟科 2年)
西紀 1950年 1月 6日生

本籍 釜山市東萊區莞安洞38
住所 서울特別市城北區道峰洞349
姓名 崔昇烈 (經濟科 1年)
西紀 1950年 2月 20日生

本籍 서울시 용산구서계동33의23
住所 서울市서대문구북아현동3의170
姓名 李明浩 (食工科 3年)
西紀 1949年 9月 27日生

本籍 서울시동대문구창신동633의19
住所 서울시동대문구창신동640의5
姓名 박광민 (철학科 3年)
西紀 1949年 3月 17日生

本籍 시내종로구관훈동28—6
住所 시내종로구관훈동28—6
姓名 오경림 (數學科 1年)
西紀 1953年 12月 6日生

本籍 서울시 중구 의주로 91번지
住所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 321~45
姓名 김정철 (일학科 1年)
西紀 1953年 1月 1日生

本籍 서울시 종로구운이동 9번지
住所 서울시서대문구대현동 110~26호
姓名 유홍구 (식품공학 2年)
西紀 1951年 8月 9日生

本籍 忠南公州郡維鳩面維鳩里617
住所 종로구봉익동11~18
姓名 고광수 (商科 4年)
西紀 1946年 9月 25日生

주민등록증 학생증을 6月 9日 市內에서 紛失